

LEEILRO

Retrospective Exhibition
Aug 5th - Aug 20th, 2025



이일로 작가 회고전을 기획하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도예가이자 교수이신 아버님의 유고전을 남매가 준비하는데 장소를 대관하느냐는 문의였다. 선정한 작가들의 기획 전시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관을 거절하며 통화를 종료하려다가 전화기 너머로 전달되는 진정성에 대화를 이어갔다. 작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이후 여러 번의 만남을 가지며 정말 의미 있는 전시라는 생각에 초대전을 결정하고 이일로 작가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남매의 부모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은 예술 종사자의 작가에 대한 무한 존경으로 전이되었다. 이번 전시는 이일로 작가의 가족이 오랜 기간 정성껏 준비한 아카이브를 따라가며, 작가의 삶과 예술을 조명해 보고 다하지 못한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아트 살롱 드 아씨 갤러리 관장, 이혜숙

On the Occasion of Lee Il-Lo's Retrospective Exhibition

One day, I received a phone call. The caller asked whether we rented out our space, as they were preparing a posthumous exhibition for their father, a ceramic artist and professor. Since our venue only hosts curated exhibitions for selected artists, I was about to decline. But there was a sincerity in their voice that made me pause and continue the conversation. Curiosity about the artist grew. After several meetings, I came to believe this exhibition was significant, and we decided to invite Lee Il-Lo as a featured artist. What began as two siblings' deep respect for their father's life and work eventually resonated with me as a form of artistic reverence—something I, too, hold as essential in my work in the arts. This exhibition invites viewers to follow a lovingly prepared archive, assembled by the artist's family over many years. Through it, we hope to hear the stories that Lee Il-Lo could not finish telling himself, and to reflect together on the depth and spirit of his work.

Director of Salon de H, Hae Sook Lee

故 이일로 교수 작품전에 부쳐

나는 전공을 같이 한 대학 동기동창으로서, 이 교수와는 졸업 후 평생 동안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전화로 대화하던 친한 친구로, 작고한 후 사모님과 자녀들이 힘을 합쳐 아버지의 작품전을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교수의 작품은 초기에는 물레를 사용한 도자기 성형을 십여 년 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자기의 작품 개성을 찾기 위하여 점토판을 이용한 조형작업으로 바꾸어 대량생산이 아닌 자기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디자인을 한 후 점토판을 만들고 잘라서 하나하나를 이어 붙여 형태를 만드는 작업으로 수분 건조 상태가 다르면 안 되는 작업으로, 작업이 시작되면 완성까지 몰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작가의 끈질긴 노력과 혼과 집념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물어보니 99개의 점토판을 이어 만든 작품을 만든 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수로서 제자들을 양성하기도 하였고, 문화센터에서 사회인들에게 교육하기도 하였고, 도예가회 임원으로 활동한 고 이일로 교수님의 전시회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또한 이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갤러리 아트 살롱 드 아씨의 이혜숙 관장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한 홍 곤

In Commemoration of the Late Professor Lee Il Ro's Exhibition

As a close friend and university classmate who majored in the same field, I had the pleasure of staying in touch with Professor Lee Il Ro over the years—sometimes meeting in person, other times talking over the phone. It brings me great joy to see that, after his passing, his wife and children have come together to organize this exhibition of his work.

In the early years, Professor Lee focused on wheel-thrown ceramics, dedicating over a decade to this traditional technique. Later, in pursuit of his own artistic identity, he transitioned to slab-building methods, shifting away from mass

production and toward creating uniquely personal works. His process involved designing each piece, creating clay slabs, cutting them, and carefully assembling them one by one. This was an intensive process that demanded precise moisture control and absolute focus from start to finish. It was a testament to his unwavering effort, spirit, and determination. I remember asking him once, and he told me he had created a piece composed of 99 individually joined clay slabs.

As an educator, he nurtured many students, taught adults at cultural centers, and actively served as a board member of various ceramic artist associations. I offer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is exhibition honoring the late Professor Lee Il-ro.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Director Hye-Sook Lee of Gallery Art Salon de Assis for making this exhibition possible.

Hanyang Women's University Honorary Professor, Han Hong Gon

“깨지기 전, 그 영원함과 신비성에 대하여”

한국 현대 도자 예술의 대가인 故 이일로(李一魯, 1943~2022)는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공예과의 산업공예 석사를 졸업하고 한국 도작가회 회장,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세계 8개국 도예가로 뽑혀 작품이 전시되기도 했다. 이 작가는 1960대부터 약 40여 년간 활발한 도자 예술 작품 활동을 펼치며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 당시 일제 침략과 6.25를 거친 한국은 도예의 공백기였다. 1960년대 초부터 전통 도예를 중심으로 근대 도예가 시작되었으며, 창작 도자 예술은 이일로 작가를 비롯해 소수의 명백이 이어져 왔다.

이일로 작가의 작품은 한국 고유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과감한 시도, 추상적인 현대 조형미와 구조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도저히 불에서 구울 수 없는 불균형한 형태의 작품을 불속에서 중심을 잡고 견디어 내는 작품으로 탄생시켜 영원성과 신비성을 불어넣었다. 작품마다 무제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도 신비로움과 의아함, 심리적 긴장감을 주기 위함이다.

평소 이 작가는 생전 도예에 대한 매력을 ‘도자기는 깨어지지 않는 한 영원하다’라고 말해왔다. 도자기에 담긴 예술가의 혼과 영원성을 강조한 작가의 신념이 드러난다.

프리랜서 작가, 김 연 정

LEE IL RO, the Pioneer of Modern Korean Ceramic Art

Lee Il Ro (1943-2022), a master of modern Korean ceramic art, was born in Kaesung, North Korea. He graduated with a bachelor's and a master's in Ceramics and Sculpture from Hongik University. He also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 Ceramic Artists Association and dean of the College of Fine Arts at Hongik University. During the 1988 Seoul Olympics, he was selected as one of the ceramic artists from eight countries worldwide to exhibit his work. From the 1960s, Lee actively participat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biennales, contributing to the field of ceramic art for over 40 years while dedicating himself to educating future generations. During a challenging period of void in Korean ceramics due to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Korean War, modern ceramic art continued through the efforts of a few artists, including Lee Il Ro.

Lee's works are characterized by bold attempts and the incorporation of abstract modern forms and structural beauty, rooted in Korea's unique aesthetic sense. He is known for creating seemingly impossible, unbalanced shapes that withstand the kiln's fire, embodying eternity and mystery. He titled his works "Untitled" to evoke a sense of mystery, wonder, and tension. In his lifetime, Lee expressed his passion for ceramics by saying, "Ceramics, as long as they do not break, are eternal." This statement reflects the artist's belief in the soul and eternal nature embedded in ceramic art.

Freelance Writer, Lena Kim

도예가 이일로는 전통적인 기법에 머무르지 않고 조형적 실험정신, 영원성과 신비성에 대한 탐구, 그리고 욕망으로부터의 해탈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도자세계를 구축한 작가다.

그는 지금의 현대 도자가 다양하게 발달하는 시대적 과도기 속에서, 실험과 개척정신, 그리고 우직한 도공의 정신을 바탕으로 창작에 임해 왔다. 특히 그는 건축적 형태와 고성(古城) 같은 신비로움을 도자에 담아냄으로써, 물성(materiality)과 정신성(spirituality)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전개해 왔다.

1. 조형 실험과 구조적 탐구

이일로 작가는 다양한 성형 기법을 시도했지만, 특히 판성형에 집중하며 그 기법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확장해 왔다. 그의 작업은 물리적으로 중심을 잡기 어려운 구조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통해 건축적 긴장감과 형태적 도전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웨이브 형태, 불균형적 구조, 거친 질감 등은 그의 대표적인 형상 언어다.

2. 도자기의 영원성과 신비성

그는 도자기를 “영원성을 갖는 예술”이라 말했다. 가마 속에서 완전히 소성된 도자기는 다시 고칠 수 없기에, 작가는 늘 완성의 순간을 넘어서지 않는 겸허함을 강조했다. 작가는 뇌 수술 이후 삶과 죽음, 욕망과 해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작품에 투영하며, 신비롭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충위를 도자 안에 구현해 냈다. 그의 도자기는 설명보다는 감응으로 다가오며, 제목조차 붙이지 않는 ‘무제(無題)’의 형태로 관람자에게 해석의 자유와 감동의 여지를 남긴다.

3. 장인 정신과 예술가의 균형

이일로는 본래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작업에 임할 때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대담한 시도와 독창성을 보여주었다. 유약조차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던 그의 작업 방식은 단순한 재현이 아닌, 진정한 창조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는 도자기와와의 관계에서 “깨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말하며, 애착과 욕심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이일로 작가는 현대 도자의 발전 과정에서 독창성 언어를 창출해 낸 실험가이자 철학적 장인이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넘어, 시간과 감정, 존재와 해탈이라는 깊은 사유를 담고 있으며, 도자기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끊임없이 묻고자 했다. 그는 예술가로서, 또 한 도공으로서 겸허하면서도 강인한 태도로 현대 도자예술을 탐구했던 개척자였다.

Art Salon de H 갤러리 관장, 이혜숙

Ceramist Lee Il-Ro has forged a unique and profound world of ceramics by transcending traditional techniques and embracing three central themes: sculptural experimentation, the pursuit of eternity and mystery, and liberation from desire. As contemporary ceramics undergo a dynamic transition, Lee has remained rooted in a spirit of innovation, perseverance, and craftsmanship, pioneering a path that blurs the boundaries between material and metaphysical realms.

1. Sculptural Experimentation and Structural Inquiry

Lee explored various forming methods, but his primary focus was on slab-building techniques, which he continuously expanded upon. His works often feature structurally unstable forms, deliberately chosen to evoke a sense of architectural tension and formal audacity. Undulating surfaces, asymmetrical constructions, and raw, expressive textures form the visual language that defines his ceramics—each piece a balance between precision and spontaneity.

2. The Eternal and the Mysterious in Ceramics

Describing ceramics as “an art of eternity,” Lee emphasized the irreversible moment of completion that comes with firing—once a piece emerges from the kiln, it cannot be altered. This finality instilled in him a deep humility toward the creative process. Following a life-altering brain surgery, Lee’s work began to reflect deeper philosophical themes: the boundaries between life and death, desire and detachment. Eschewing titles for his works, he invited viewers to engage intuitively, offering space for emotional resonance and open interpretation.

3. The Balance of Artisan and Artist

Despite his inherently reserved nature, Lee’s approach to creation was marked by boldness and originality. From form to glaze, every element was crafted by his hand, embodying his belief in actual creation over mere replication. He once said, “You must learn how to break before you can make,” a testament to his artistic philosophy of letting go of attachment and ego in pursuit of authenticity.

Lee Il Ro was not only an innovator in contemporary ceramics but also a philosophical artisan who continually questioned the essence of existence through his medium. His works transcend formal beauty, offering contemplative encounters with time, emotion, and being itself. With humility and strength, he charted a path that redefined the potential of ceramic art.

Director of Art Salon de H Gallery, Hae Sook Lee

한국 현대 도자 예술의 거장, 이일로

작품 감상

고 이일로 작가 (1943~2022)는 한국 현대 도자 예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의 작품들은 전통적 도예에서 출발하여 현대 조각의 본질에 접근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들은 도예라는 매체를 통해 기존의 틀을 벗어나 현대 조각과의 교차점에서 독창적인 조형미를 창조하였는데, 이는 재료와 형태에 대한 작가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일로의 작품은 대담한 비대칭과 추상적인 구조 미가 특징이다. 이일로의 조각은 고정된 형태를 넘어, 빛과 그림자, 시점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하는 열린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표면의 질감은 마치 녹슬거나 침식된 느낌을 주어 시간의 흔적을 녹여 공간성과 시간성의 개념을 작품에 표현하였다.

작품의 진화

1. 초기 : 전통 도예에서 출발한 그는 물레 성형과 전통 기법을 중심으로 실용 도자기를 제작하였다.
2. 전환기 : 1970년대 이후 조형적 실험에 몰두하며, 판상 성형 기법을 도입해 도자기를 순수 조형물로 확장하였다.
3. 완성기 : 1980년대 후반부터는 건축적이고 역학적인 긴장감을 부여한 작품들로 도예의 독창적인 예술로 승화시켰다.

현대적 재해석

그는 과감한 시도를 통해 도예의 경계를 넘어서는 형태미와 물성, 시간성을 탐구하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 이일로 작가의 유작들은 현대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세련된 미감으로,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한국 도자 예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전 세계 예술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그의 미발표 유작과 대표작들을 조명하며, 대중들에게 그의 작품 세계와 창작 철학을 새로운 시각으로 탐구할 기회를 제공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Lee Il Ro: A Master of Contemporary Korean Ceramic Art

Appreciating the work

The late artist Lee Il Ro (1943–2022) opened a new chapter in contemporary Korean ceramic art. His work, rooted in traditional pottery, evolved to approach the essence of modern sculpture. Through the ceramic medium, Lee transcended conventional boundaries, creating a distinctive sculptural aesthetic at the intersection of pottery and contemporary art—a result of his deep understanding of both material and form. His work is characterized by bold asymmetry and abstract structural beauty. Rather than fixed forms, his sculptures offer open-ended structures that invite reinterpretation through shifting light, shadow, and perspective. The surface textures often evoke a sense of rust or erosion, expressing traces of time and embedding spatial and temporal dimensions into the work.

The Evolution of His Art

1. Early Period : Beginning with traditional techniques, Lee focused on wheel thrown ceramics and the creation of functional pottery grounded in Korean ceramic heritage.
2. Transitional Period : In the 1970s, he immersed himself in sculptural experimentation, adopting slab-building techniques and transforming ceramics into purely artistic forms.
3. Mature Period : From the late 1980s, he developed works infused with architectural and dynamic tension, ultimately elevating ceramics into a unique art form of its own.

A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Through bold experimentation, Lee Il Ro explored the formal beauty, materiality, and temporality of ceramics, pushing beyond the traditional boundaries of the medium. His legacy presents a refined aesthetic that harmonizes with contemporary design while serving as a bridge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His work offers a vision for the future of Korean ceramic art and continues to influence the global art community.

This exhibition, featuring both unpublished and representative works, offers the public a fresh perspective on Lee Il Ro's artistic world and creative philosophy.

Gallery Marie in New York Director / Curator, Yun Jung Rhee

작가 소개 및 약력

국민학교 시절부터 미술에 두각을 나타내어 선생님의 제안으로 미술 공부를 이어오던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조소를 전공한 미술 선생님[작가 전뢰진]을 만나 자연스럽게 흙을 접하게 된다.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부조하며 흙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 이것이 미대 진학을 꿈꾸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

홍익대학교 미대 공예과 입학 후 물레 작업으로 도예의 기초를 닦고 도예를 전공하며 전통적인 전승 도자기 작업으로 우리나라 도자기 맥을 이어갔다. 1960년대 초 한국 현대 청년 작가 도예가회의 회원으로서 전시회에 참여하였고, 대학교 3학년 때 신인 예술인전 4회 공모전에 첫 출품하여 공예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졸업 후 교직을 이수하여 1975년 홍익 공전에 부임한 후 1977년부터 그의 작품들도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국제 조류에 앞서가는 도자를 제작하기 위해 조형 연구에 관심을 갖고 전통적인 물레성형에서 벗어나 표면 처리의 효과를 살리는 등 독창적인 조형작업으로 전환한 이후 여러 전시에 참여하는 동시에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갔고, 1983년에는 첫 개인전 <이일로 도예전>을 가졌다. 1990년에 미술대학 공예과 교수로 부임된 후에는 실험적 형태를 많이 시도했던 작가로서 학생들에게도 창의적이고 신선한 실험정신을 심어주는 교수방법을 채택하여 창의성 개발에 주력하였다.

학 력

1977 ~ 1981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공예 석사졸업
1963 ~ 1971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교 공예과 졸업

경 력

2005 ~ 2007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학장 역임
1990 ~ 2010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부교수 ~ 교수재직
1982 ~ 1985 한국 도작가회 회장 역임

수 상

2018 황조근정 훈장 정부포상 / 대통령 이명박
1975 ~ 1980 제25회~29회 대한민국 국전 출품 입선 / 국립현대미술관
1969 제18회 대한민국 국전 출품 입선 / 국립현대미술관
1965 제14회 대한민국 국전 출품 입선 / 국립현대미술관
1965 제 4회 신인예술인전 출품 공예부 장려상 / 중앙공보관
1984 제 9회 국제 도자기 비엔날레전 출품 입선 / 프랑스 발로리스

작 품

2000 홍익 형상 2000년전 출품 / 홍익갤러리
1999 청주 세계공예 비엔날레전 초대전 출품 / 청주시
1995 창간 50주년 기념 초대전 (한국현대도에 50인) / 서울갤러리
1994 한국현대도에 30년전 초대전 출품 / 국립현대미술관
1991 ~ 1998 서울공예대전 초대전 출품 / 서울시립미술관
1990 한국현대도에 4인 초대전 / 미국 한국문화원
1990 예술의전당 개관기념 초대전 출품
1989 ~ 1993 서울현대도에 비엔날레전 출품 / 서울시립미술관
1988 동서 현대도자기전 출품 / 문예진흥원
1986 ~ 1987 한일 친선 한국현대도예가 일본 초대전 / 일본 전국 순회
1985 서울 세라믹 워크 85년전 출품 / 일본 동경
1983 개인전 / 공간미술관
1983 ~ 1995 제4회~제10회 한국도에 도예가회 회원전 출품
1982 82' 국제도예전 출품 가작상 / 일본 한국문화원
1981 아세아 디자인교류전 출품 / 일본 사가
1978 ~ 2003 제13회~제37회 한국미술협회 회원전 출품
1976 ~ 2003 제28회~제55회 대한 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 출품
1976 ~ 1998 제4회~제28회 홍익도작가회 회원전 출품

주요 심사경력

1996 제11회 대한민국 공예대전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1995 제10회 대한민국 공예대전 심사위원장 (한국미술협회)
1992 제 7회 대한민국 공예대전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1990 제26회 산미 전국 디자인공모전 심사위원
1986 제22회 전국 산업미술 공모전 심사위원
1986 제 7회 한국 현대미술대전 심사위원
1983 제 4회 한국 현대미술대전 심사위원
1982 제18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주최 전국디자인 공모전 심사위원
1982 제 3회 한국 현대미술대상전 심사위원

Artist Profile & Biography

From a young age, Lee Il Ro showed artistic promise, which was recognized by his teachers and encouraged his pursuit of art. In middle school, he met artist Jeon Rae Jin, a sculptor, and was introduced to working with clay. Creating a relief sculpture of his late father left a lasting impression on him and sparked his dream of pursuing a career in fine art.

After entering the Department of Craft at Hongik University, he mastered basic wheel techniques and pursued traditional ceramics, continuing Korea's rich pottery legacy. In the early 1960s, he participated in exhibitions as a member of the Korean Young Ceramic Artists Association. In his third year of university, he won an Honorable Mention in crafts at the 4th New Artists Exhibition. After graduating, he entered the field of education and joined Hongik College of Technology in 1975. By 1977, his work began to evolve. Seeking to pioneer new architectural directions aligned with international trends, he transitioned from wheel-thrown techniques to experimental sculptural work emphasizing surface treatment and originality. He actively participated in exhibitions while maintaining a steady creative output. In 1983, he held his first solo exhibition, Lee Il Ro Ceramic Art Exhibition.

Appointed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raft at Hongik University in 1990, he promoted creative thinking and encouraged students to take fresh, experimental approaches to form.

Education

- 1977 ~ 1981 • M.F.A. in Industrial Craft,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rt, Hongik University
- 1963 ~ 1971 • B.F.A. in Craft, School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Career

- 2005 ~ 2007 • Dean,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 1990 ~ 2010 • Associate Professor to Professor,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 1982 ~ 1985 • President, Korean Ceramic Artists Association

Awards

- 2018 • Hwangjo Geunjeong Medal (Order of Service Merit), Presidential Award
- 1975 ~ 1980 • Accepted to the 25th~29th National Art Exhibitions of Korea
- 1969 • Accepted to the 18th and 14th National Art Exhibitions of Korea
- 1965 • Accepted to the 14th and 14th National Art Exhibitions of Korea
- 1965 • Honorable Mention, 4th New Artists Exhibition, Central Public Information Hall
- 1984 • Accepted to the 9th International Ceramics Biennale, Vallauris, France)

Major Exhibitions

- 2000 • Hongik Forms 2000, Hongik Gallery
- 1999 • Invited,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 1995 • 50 Years of Korean Contemporary Ceramics, Seoul Gallery
- 1994 • 30 Years of Korean Contemporary Ceramic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 1991 ~ 1998 • Seoul Craft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 1990 • 4 Korean Ceramic Artists, Korean Cultural Center, USA
- 1990 • Opening Exhibition, Seoul Arts Center (1990)
- 1989 ~ 1993 • Seoul Contemporary Ceramics Biennale
- 1988 • East-West Contemporary Ceramics Exhibition)
- 1986 ~ 1987 • Korea-Japan Friendship Ceramics Exhibition, Nationwide Tour in Japan
- 1985 • Ceramic Works '85, Tokyo, Japan
- 1983 • Solo Exhibition, Gonggan Art Museum
- 1983 ~ 1995 • Member Exhibitions, Korean Ceramics Association
- 1982 • 1982 International Ceramics Exhibition, Excellence Award, Korean Cultural Center, Japan
- 1981 • Asia Design Exchange Exhibition, Saga, Japan
- 1978 ~ 2003 • Korea Fine Arts Association Exhibitions
- 1976 ~ 2003 • Korea Industrial Designers Association Exhibitions
- 1976 ~ 1998 • Hongik Ceramic Artists Association Exhibitions

Major Jury Experience

- 1996 • Judge, 11th Korea Crafts Exhibition
- 1995 • Head Judge, 10th Korea Crafts Exhibition
- 1992 • Judge, 7th Korea Crafts Exhibition
- 1990 • Judge, 26th National Design Contest
- 1986 • Judge, 22nd National Industrial Design Competition
- 1986 • Judge, 7th Kore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 1983 • Judge, 4th Kore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 1982 • Judge, 18th National Design Competition hosted by the Korea Industrial Designers Association
- 1982 • Judge, 3rd Korea Contemporary Art Grand Prize Exhibition

아버지 작품전을 준비하며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 전시는 아버지가 팔순이 되는 2023년 즈음, 생신을 기념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각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후, 3년이 흐른 지금 회고전의 전시가 되었다. 이런 현실이 한편으론 후회가, 또 다른 한편으론 기쁨과 먹먹함이 뒤섞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다가온다. 누이가 미국에 있고, 나는 직장을 다니며 틈틈이 전시를 준비해야 했기에 이 작업은 3년이 좀 넘는 시간이 걸렸다. 작가인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남아 있는 팸플릿과 어렵게 찾은 인터뷰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가야 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비전공자인 내가 감히 아버지의 작품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의 작품은 그 당시로서는 꽤나 실험적이고 고된 작업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만들어 남기신 작품이, 소품을 모두 포함해도 총 60여 점에 불과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익숙하고 편안한 작업에서 점점 더 어려운 작업으로 옮겨 가신 아버지의 모습은, 나에게 어떤 이유로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나 역시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해오며 몇 번의 이직을 경험하였는데, 그때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택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답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어렵פות이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기도 하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깨달은 것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이 단지 작품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내 일의 특성상, 이해관계가 얽힌 만남이 일상이었고 언제나 앞만 보고 달려야 했다. 그런 내게 이번 전시 준비는 심표와도 같은 시간이었다. 과거로 되돌아가 깊이 들여다보고, 천천히 정리해야 했던 이 작업은 내 삶의 익숙한 리듬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아버지의 작품을 주제로 이야기 나눌 때마다 나는 ‘쉼’과 ‘치유’를 느끼곤 했다. 이 모든 경험이 아버지께서 내게 남겨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들, 이기성

Preparing My Father's Retrospective Exhibition

Had things gone according to plan, this exhibition would have marked my father's 80th birthday in 2023—a celebration of his life and art. However, after his sudden passing, three years have passed, and what was meant to be a birthday tribute has evolved into a posthumous retrospective. This reality brings with it a mixture of regret, quiet joy, and a deep, indescribable ache. With my sister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nd me working full-time, the preparation took over three years. It was no easy task. Without the artist himself, we had to piece together his journey from old pamphlets and hard-to-find interviews, tracing the remnants of his life and work. Although I'm not an art specialist and cannot claim to grasp the depths of my father's creative world fully, I came to sense just how experimental and demanding his work was for its time. Perhaps that is why, even including small-scale works, his entire body of work amounts to only about sixty pieces. As I revisited his artistic path—his shift from more accessible work toward increasingly complex modes of expression—I realized it didn't feel foreign to me at all. I, too, have worked in Yeouido for many years, switching jobs several times. People often asked why I would choose such difficult paths, and I usually didn't have an answer. But now, I think I understand—at least in part—what might have driven him. What I came to realize while preparing this exhibition is that my father's legacy extends beyond his artworks. In my professional life, meetings driven by vested interests are the norm, and I've been constantly on the move, always looking forward. However, this project compelled me to pause, look back, reflect deeply, and take my time. It was a complete break from the pace I was used to. Along the way, I met people who remembered my father, shared stories about him, and spoke thoughtfully about his art. Each of these encounters brought me a sense of rest and healing. I now see these moments, too, as part of the precious inheritance my father left me.

Son, Ki Sung Lee



이일로

李一魯

Lee Il Ro

(1944-2022)



무제, 18X17X23, 1976



무제, 20X36X29, 1980



기, 15X11X44, 1981

1981년 제2회 한국현대미술대전 출품작



무제, 43X21X44, 1981

1981년 미도파화랑 출품작





기, 27X40X7, 1982

1982년 제 3회 현대미술대전 출품작



무제, 15X37X24, 1983

1983년 제4회 한국현대도예가회전 출품작



무제, 55X22X37, 1982

82년 한국 도작가회전 출품작,
제 9회 프랑스 국제비엔날레전 출품, 입상작





무제, 25X45X45, 1983



무제, 11X33X44, 1983



돌출1,2, 30X14X28, 30X35X28, 1983



사각접시, 38X38X7, 1983



사각접시, 41X41X8, 1983





무제, 36X53X29, 1984

제9회 국제 도자기 비엔날레 출품작 Vallauris, France



무제, 38X20X39, 1984



무제, 26X22X39, 1984



무제, 33x40x50, 1985



무제A, 40X25X30, 1985

제 5회 한국도예가회전 출품작

무제B, 50X37X21, 1985

1989 서울현대 도예비엔날레





무제(벽장식), 37x40x17, 1986

87년 제6회 한국 현대도예가협회전 출품작







고독, 28X26X44, 1984

1986년 한국도작가회전 출품작



Nature A, 49X34X27, 1987



Nature B, 40X23X30, 1987









고성, 40X39X44, 1989



무제, 47X32X27, 1989

제7회 한국현대도예가회전 출품작



고성, 49X35X44, 1990





무제, 53X46X56, 1991

91년 서울 현대 비엔날레 출품작



무제, 59X47X49, 1991



무제, 43X38X28, 1991



무제, 45X43X44, 1991

91년 제8회 한국현대도예가회전 출품작,
1995년 서울신문창간 50주년 한국현대도예 50인 초대전 출품작



무제, 41X44X39, 1993

93년 제9회 한국현대도예가회전 출품작





무제, 25X29X5, 1995



1995-A, 35X35X11, 1995

제10회 한국현대도예가회전 출품작



상, 37X38X13, 1995



의자, 33X30X27, 1995



무제, 30X32X11, 1996



무제, 30X31X6, 1996



무제, 42X36.5X45, 1996



항아리, 30X31X31, 1997



무제, 36X37X21, 1997



항아리, 37X35X24, 1998



항아리, 21X21X21, 2000



성, 22X26X31, 2000



항아리, 26X26X21, 2000



항아리, 23X23X21, 2000



항아리, 20X20X20, 2000



회상, 18X18X17, 2001

01년 제13회 현대도예가회전 출품작



흙토기, 16X16X23, 2001



금박접시 A-Dark, 26X28X5, 2003
금박접시 B-Light, 25.5X27X4, 2003



금박 화병, 20X13.5X22, 2003



무제, 18X17X45, 17X12X40, 2002



대립, 25X25X55, 2003

03년 제14회 한국현대도예가회전 출품작







성5, 18.5X23X39, 2005

05년 제15회 한국현대도예가회전 출품작





적(積), 24X23X51, 2009

제17회 한국현대도예가회전 출품작



적(積)1, 19X21X45.5, 2009



적(積)2, 30X13.5X31, 2009



적(積)3, 26X18X24.5, 2009

갤러리 Art Salon de H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8길 16
신영증권빌딩 B128호

Aug 5th - Aug 20th, 2025

Copyright © 2024 LEEILRO - All Rights Reserved.

Julie@LaBleuStudio.com